

16살 소년 과거와 현재 오가며 '5·18'을 반추하다

(사)창작극악단 도드리 창작극 '5·18, 그 위대한 진실을 기억하라' 무대 9월3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임 행진곡' 합창 '진혼 아리랑' 연주

격동과 상흔의 5·18 현장에서 저항하던 16살 소년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43년이 흐른 어느 날 광주를 진혼하는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사)창작극악단 도드리는 창작극 '5·18, 그 위대한 진실을 기억하라'를 다음 달 3일(오후 5시)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도드리는 공연에서 연극 형식을 토대로 창작극, 도창(창극에서 제삼자가 극의 전개를 창으로 해설하는 방식)과 독백, 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무대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곡 '아름다운 광주'가 막을 연다. 이어지는 '동트기

바로 전에는 공수부대의 진입을 표현한 곡인데 배창희 작곡가의 노래와 5·18 영상을 함께 보여준다.

"16살, 나는 죽었소, 곧봉 때문인지 같증 때문인지 실신했어 죽어브렀소./ 집에 가야한다, 어머니가 기다리는데, 죽어서 가지 못하겠소"(16살, 나는 죽었소'중에서)

쓸쓸한 독백에 답기는 16살 영령의 목소리와 도창 '아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로 대변되는 어머니의 서사가 주고받듯 이어진다. 독백과 도창으로 각각 진행되지만 두 시나리오는 사실상 대화 형식으로 연계되며 오월의 희생을 상기시킨다. 또 대금독주도 예정돼 있는데 박정원이 '그 저녁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광주의 미래를 염원하는 노래 '아리랑 광주', 관람객과 함께 합창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무

용과 연주를 곁들인 '진혼 아리랑'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사십년 세월 흘러 흘러도 돌아올것만 같은 아들/ 어느날 꿈에 찾아와서는 엄마엄마 배가 고파요/ 꿈에 나타나 울아들이 '엄니, 배고프요' 하드라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안 줬어? / 찢기는 가슴 부여잡고 오늘도 바라만보네..."

그 가운데 노래 '무등산은 언제나 그 자리'는 40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행복자로 남아 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한맺힌 설움을 보여준다. 절망 속에도 늘 묵묵히 버티고 서있는 '무등산'은 '광주'의 아픔과 슬픔 그림에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희망을 상징한다.

도드리 김재섭 이사장은 "위대하지만 가슴 아픈 오월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5·18을 직접 조명하는 방식으로 창작공연을 준비하게 됐다"며 "공연을 계기로 그날의 진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구남컬렉티브 작 'Vinyl In The Desert'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구남컬렉티브

구혜영·김영남 아티스트 듀오...신진작가상엔 이수린

제24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상금 1000만원)에 구남컬렉티브가 선정됐다.

광주 신세계는 제24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구남컬렉티브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남컬렉티브는 구혜영과 김영남이 결성한 아티스트 듀오로 이번 전시에서는 'Vinyl In The Desert', '눈 속의 여자' 등 총 7점의 영상작품을 출품해 삶과 죽음, 의식과 무의식(초현실)의 경계를 표현했다. 그동안 퍼포먼스와 영상을 중심으로 설치, 공연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작품을 예술언어로 표현해왔다.

구혜영은 중앙대 조소학과와 영국 골드스미스, 런던대 MFA를 졸업했다. 김영남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및 동 대학교 미술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아울러 신진작가상(상금 500만원)에는 이수린 작가가 선정됐다. '하이쿠', '3분 33초' 등 회화작업을 선보여온 이 작가는 '빛질의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회화의 재현 방식을 탐구해왔다.

계원예술대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서울과기대 대학원 조형예술과를 수료했다.

신세계 미술제는 수상작가 선정을 위해 개별 온라인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 심사를 걸쳐 1차 선정작가 8명을 선별했다. 지난 17일 심사위원들이 전시장을 방문, 2차 작품심사와 1차 선정작가 8명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수상작가를 선별했다.

현재 1층 갤러리에서는 1차 선정작가전 작품 작가인 구남컬렉티브, 노은영, 박정민, 서영기, 유지원, 이수린, 임다인, 임용현의 작품이 포트폴리오와 함께 9월 19일까지 전시 중이다.

한편 수상작가 시상식은 지난 25일 광주신세계 본관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창작극악단 도드리의 김재섭 지휘자가 지휘하는 모습.

<창작극악단 도드리 제곡>

동곡미술관 전시 오지호 미공개 작품 위작 논란...작품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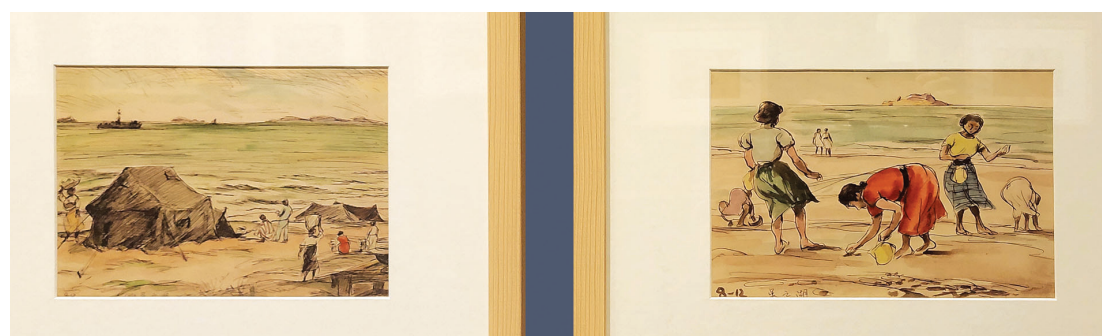
문웅 컬렉터, 오 화백 스케치북 구입 오 화백 손녀 "화풍 생소·필체 아냐" 미술관, 감정 결과 보고 대책 논의

동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어느 수집가의 인연'에 소개된 오지호 화백의 미공개 작품이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미술관은 위작 논란이 제기된 작품을 철거하고 다른 작품으로 대체한 상태다.

미술관은 지난 9월부터 문웅 컬렉션 '어느 수집가의 인연' (10월 3일까지)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에는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오 화백의 1956년 작 20여 점이 소개됐다. 특히 한국인상주의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오 화백의 미공개 그림이 소개돼 이목을 끌었다.

문제는 오지호 화백의 그림이 유족을 비롯한 지역 미술계 관계자들에 의해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림은 스케치북에 펜과 목탄을 이용해 그린 작품으로 인물 스케치를 비롯해 해변가 풍경 수채화 등이다.

오 화백의 손녀인 오수경 작가는 "확인 차 전시관에 들렀는데 작품들은 할아버지 화풍이랑 맞지 않아



위작 주장이 제기된 오지호 화백의 작품들.

생소했다"며 "할아버지는 정통 서양화를 추구했기에 삽화나 자유로운 선 같은 것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시 작품에 표시된 1956년이라는 흔적이 있어 할아버지의 1956년 강의 노트와 비교했는데 필체도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감정을 맡겼다고 하니 결과가 나와 봐야 추후 대응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웅 컬렉터는 원 소장자인 손 모씨로부터 올해 7월 오 화백의 스케치북(24점)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문 박사에 따르면 "손 모씨는 작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작품의 감정을 위해 1983년경 광주에 내려가 오지호 화백 자택에서 둘째 아들 오승운 화가를 만나 작품을 보여드렸다. 당시 오승운 화백은 '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남기셨다니 새삼 더 존경스럽다' 하시면서 '아버님 작품이 맞다'며 작품을 들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손 모씨는 '화가인 아들'이 진품이라는 데 감정을 더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다가 광주에서 이번 전시를 한다 길래 문웅(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박사는 "손 모 씨에게 감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미술관 측은 "현재로서는 감정 의뢰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구매자나 유족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감정 결과를 보고 추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무지크바움 오케스트라

나주시민과 함께하는 클래식 가족음악회

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 오늘 나주문화예술회관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좋은 클래식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대표 조기홍·무지크바움)이 '나주시민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를 29일(오후 7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연다.

먼저 무지크바움이 챔버(실내악) 앙상블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야생 당나귀', '거북이', '귀가 긴 등장인물-노래', '숲속의 배꾸기' 등 동물을 모티브로 한 악곡들이 울려 퍼진다.

이어 무지크바움(이화) 유소오케스트라가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2번',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 영화 '대탈주'와 '맘마미아' OST 등을 연주한다. 또 손정훈이 편곡한 '꿈

의 클래식'도 감상할 수 있다. 지휘에 신경 쓴다.

한편 무지크바움은 지난 2004년 창단해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음악 단체이다. 그동안 나주를 중심으로 현정음악회, 프로젝트성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화여대 음대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을 졸업한 김정아의 해설을 곁들인다는 계획. 여기에 김형미(피아노), 박지현, 이예린(바이올린), 첼로(오지희), 콘트라베이스(류창국)의 선율도 울려 퍼진다.

아울러 이주혜(플루트), 이다운(클라리넷), 김유양(타악기)도 무대에 오른다.

전석 초대. 공연문의는 연락처(010-6331-6834).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 '사유정원', 미국 SEG D 디자인상 수상

동아시아 사상과 미, 정원 재해석 호평...대중성·작품성 모두 갖춰

지난 27일 성황리에 종료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의 '사유정원'은 동아시아의 사상과 미, 정원을 재해석해 아시아 고유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시로 호평을 받았다. 총 관람객수 19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건고 보고 쉬면서 사색하는 전시'를 주제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췄다는 호평을 받았다.

ACC의 상설전시 '사유정원'이 세계 최고 권위 SEG D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ACC는 상설 융·복합 콘텐츠 전시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SEG 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2023' 시상식에서

전시부문 메리트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SEG 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SEG D (Society for Experiential Graphic Design) 협회가 198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 권위 있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ACC 수상은 우리나라 전시 부문 최초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강현 전당장은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가 실감체험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SEG D 어워드에서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ACC는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해석한 전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녹음_넙은 비위에 누워 달을 보며'

국립광주박물관 '숲 이야기' 재개...9월 1일 '달밤투어'

박물관 숲에서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재영)은 무더위로 인해 중단됐던 '박물관 숲 이야기'를 재개한다.

'박물관 숲 이야기'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매월 둘째 주 토요일), 박물관 정원에서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9월부터 재개해 9월,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특별 프로그램 '박물관 숲 달밤투어'는 9월

1일 하루만 진행된다. 야간시간(오후 7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전시관이 아닌 정원에서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매화, 산수유, 모과나무, 동백꽃, 배롱나무 등 정원 속 다양한 식물을 활용해 광주박물관만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박물관 숲 달밤투어'는 만 5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하며, 희망자는 30일 9시부터 9월 1일 오후 4시까지 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